내년 車보험료 오르나 손보사 5% 인상 추진

KB손보·현대해상 등 7개사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 신청
대형사도 손해율 100% 넘어

내년에는 자동차보험료가 5%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이 실손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상까지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사는 4~5%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했다.

보험개발원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각 보험사에 회신한다. 검증 결과는 인상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뿐 몇 % 인상이 적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요율 검증을 신청한 KB손보는 이번 주 내에 인상안의 적정 여부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이후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10%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보험료 5% 인상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형사가 금융당국과 10% 인상안을 협의했다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고려된다.

업계는 올해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했음에도 내년에 재차 올려야 하는 근거로 높은 손해율을 들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잠정 집계를 기준으로 11월에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대형사마저도 손해율이 100%를 넘겼거나 100%에 육박했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적정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났음을 의미한다. 확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10월 손보업계의 누계 손해율이 90.6%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6.1%포인트 올랐다.

영업적자는 1~10월 1조4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그 규모가 7079억원 확대됐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와 차 고장이 빈번해 적자 규모가 10~12월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업계는 이런 실적 악화 요인으로 한방진료 급증과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을 꼽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한방 경상환자가 작년 동기보다 26.1% 증가했고, 인당 한방 치료비도 7.9% 올랐다. 인당 양방 치료비가 0.5% 떨어진 것과 대조된다.

업계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한방치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으로 자동차 1대당 공임·도장료가 올해 1~3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10.5% 오르기도 했다.

업계는 비용 절감 노력을 할 만큼 했다고 입장이다. 보험료 수입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사업비율이 올 1~9월 17.5%로 작년 동기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픽스타

보험금 지급 > 보험료 수입… 생보사 유동성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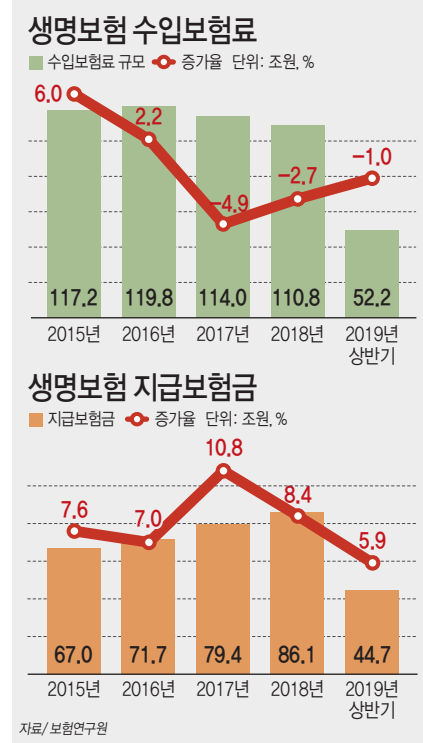
생보사, 상반기 427억 손실
보험영업현금흐름 급감 영향

2016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4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험료는 줄어드는데 지급보험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생보사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업계의 보험영업현금흐름은 42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32조8000억원, 2015년 3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16년 32조6000억원, 2017년 19조2000억원, 2018년 9조7000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뒤 올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보험영업에 따른 현금유입보다 현금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한 것은 수입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지급보험금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6년 119조8000억원에서 2017년 114조원, 2018년 110조원으로 각각 4.9%, 2.7% 감소하며 역성장하고 있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2017년 79조4000억원, 2018년 86조1000억원으로 각각 10.8%, 8.4% 증가했다.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는 건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더 많이 줄어든 영향이다. 일반계정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2018년에 각각 12.4%, 13.5% 감소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별로 보면 23개 생보사 중 올해 상반기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11곳으로 2016년 2곳, 2017년 3곳, 2018년 5곳에서 대폭 늘어났다.

이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책임준비금 대비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금 비율이 모두 10% 미만으로 금리 리스크 부담이 높았다. 책임준비금 대비 LAT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금리하락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개사 중 4개사는 같은 기간 책임준비금이 감소했다. 이들 중 1개사는 2016년부터, 다른 1개사는 2018년부터 책임준비금이 연속적으로 줄었다.

/김희주 기자

연말정산 대표적 실수 '배우자 신용카드 포함'

금감원 Q&A

Q.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주신 지난번 기사를 읽다 보니 성급하게 연말정산을 했다가 낭패를 봤던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배우자와 동시에 받았다가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했거든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실수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면 부부 중 한 명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실수를 자주 하는데, 신용카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유토이미지

그밖에 체크하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이야기' 제109호를 참고해주세요.

일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이 넘는지 체크하세요.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출을 공제항목에 포함시켰는지 확인하세요.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형제자매가 나누어 부담했어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주기자

초등생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은행聯, '경제맨 레이스' 제공

은행연합회가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금융관념을 길러주기 위해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경제맨 레이스'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맨 레이스'는 돈의 개념부터 지출과 저축, 용돈관리, 환율, 금리 등 기본적인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총 20회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제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영상(애니메이션)과 교안(활동지)이 포함되어 있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연합회가 9일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를 개발했다. /은행연합회

경제맨 레이스는 교육 플랫폼 아이스크림(i-scream)이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등을 통해 제공한다. 아이스크림은 초등교사 12만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전체 초등학급의 95%가 매일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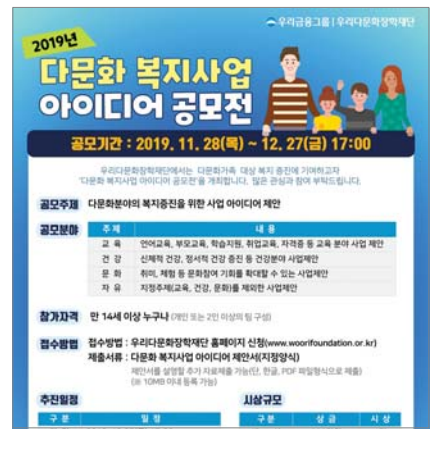
/나유리기자 yul115@

다문화 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리금융 다문화장학재단
이달 27일까지 한달간 진행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다문화 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이달 27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장학·교육·문화 등의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다문화 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우리은행 등과 함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다문화 복지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7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민영기자 hong93@